

중 관광객 급증... 무안공항 검역소 설치 급하다

12개 시·군 담당 목표검역소 직원 13명이 출장 업무 법무부는 이달내 정원 7명 출입국관리 출장소 개소

무안국제공항의 해외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법무부가 이달 내로 무안공항출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의 조직 승인까지 받아 세관과 공항출장소를 갖추게 됐다. 다만 검역소가 아직 없어 국립 목표검역소 무안국제공항 지소 설치와 검역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안공항 출입국업무 소속기관인 CIQ(세관, 법무부, 검역소) 중 세관은 광주본부세관에 11명이 개항(1997년) 초기에 증원배치됐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인원 7명으로 무안공항출장소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검역소는 아직 설치 계획이 없다. 목표검역소 측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처럼

지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7명의 검역관을 배치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무안공항 외국 여행객은 1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검역지소가 없다보니 광주와 목포에 사는 검역관 대부분이 왕복 100km가 넘는 길을 달려 야간, 휴일 출장 검역을 하고 있다. 특히 목포 검역소는 국내에서 검역구역이 가장 넓어 무안공항을 비롯해 목포·완도·신안 흑산도항까지 12개 시·군의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은 소장을 포함해 고작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시 흑산도항까지 출장검역을 가야 하는 등 격마도 시대라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무안공항에 저가항공의 정기·부정기편 증편 운항으로 검역관들은 그야말로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달에 86편의 항공기가 운항하면서 검역관들은 새벽 1시에서 7시까지 출장검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해수부장관 유기준 유력 박대통령 이르면 주중 소폭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초에 소폭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동시에 또는 짧은 시차를 두고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이주영 전 장관 사임으로 공백이 생긴 해양수산부 이외 개각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원포인트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는 해양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중이라는 게 여권에서 감지되는 기류다. 청와대 정부·소통 기능강화 차원에서 신설되는 특보단의 경우 정치인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는 흐름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용을 짤 것이라 관측이 엇갈려 나온다. 친박(친박근혜) 주류측을 중심으로 서정원 최고위원을 특보단장으로 임명하고 윤상현 의원 등 현직을 포함해 현기환·이성현 전 의원 등을 폭넓게 아울러 특보로 중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연합뉴스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 기념식이 열린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내 최영함에서 석해군 전 상호주리호 선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악수하고 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왼쪽) 등 당시 작전에 참가한 장병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3000억 기업도시 진입도로 낙찰업체 4월 결정

영암 삼호읍~해남 산이면 10.8km 전남도, 현장설명회... 정보전 치열

총 사업비가 3000억원을 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을 맡을 컨소시엄이 이르면 오는 4월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설계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컨소시엄 간 물밑 정보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20일 기업도시 진입도로 현장설명회를 갖고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입찰안내서를 배부했으며,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 등 정령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영암 삼호읍(국도 2호선)~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 연장 10.83km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1공구(5.4km)와 2공구(5.43km)로 나눠 단기방식(설계·사공 일괄)으로 발주된다. 1공구와 2공구 공사비는 각각 1675억원, 1022억원, 감리비 등 339억원 등으로 총공사비는 3036억원에 이른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당초 입찰자격 사전

심사를 신청한 1공구 대립산업(주)·(주)한양·포스코건설 등 3개 컨소시엄, 2공구 금호산업(주)·금광기업(주) 등 2개 컨소시엄이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오는 4월20일까지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에 기본설계서를, 4월21일까지 조달청에 가격입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입찰 컨소시엄 소속 직원이 심의위원 선정 일부터 설계평가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

는 행위, 심의위원 개별 설명하는 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감점이나 참가 제한 등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설계평가 심의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 풀 인원 250여명 중 25명(공무원 12~13명 포함)을 임의로 선정해 1·2공구 설계를 평가하고, 입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평가과정, 결과를 모두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맡을 컨소시엄은 '전남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해 하도급 계약 시 전남업체 70% 이상을 참여시켜 대금 직접지불제를 시행해야 하며,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건설장비 등은 전남 소재 업체를 활용해야 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첫 난방유 바우처

저소득·소외계층 2000가구 등유·연탄 구입 쿠폰 지급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난방유 바우처(쿠폰)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1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2000가구에 연탄과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쿠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난방유 바우처는 지난해 7월 광주시와 자치구, 에너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복지협의체가 제안해 이뤄졌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1065가구에 가구당 등유 100ℓ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936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150장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주에 자치구를 통해 수혜 가구에 관련 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쿠폰을 받은 가구는 연탄소매상과 시와 협약한 석유일반판매소 30곳에서 각각 연탄과 난방유로 교환할 수 있다. 박동희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서간 칸막이 없애 업무 효율화"

전남도 '협업 행정 과제' 10건 선정

전남도가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요구되는 주요 시책 10건을 '협업 행정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협업 행정이란 행정업무 추진 시 부서 간 관련 기능을 연계하고 시·정·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최근 각급 기관들이 업무 감축과 예산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협업 행정 선도과제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도 맞춤형 출산지원 서비스' 등 10건이다. 특히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과제는 무안공항을 호남권 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계 부서, 광주시, 민간 항공사 간 협업 계획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협업 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도정 내 협업 행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번 선도과제 선정은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명원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사회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수 부서가 얽힌 정책 현안들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부서·기관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과제를 발판 삼아 열린 행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협업 행정 선도과제를 활발히 추진하고, 다른 우수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초대박매출
262-0049/010-3803-2612